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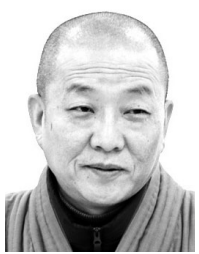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공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속맥(菽麥)이라고 한다. 속(菽)은 콩이고, 맥(麥)은 보리다. 크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확연히 다른 곡식인데, 눈으로 직접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공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속맥!'이라고 욕하기도 한다. 속맥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공과 보리뿐이겠는가? 상식과 비정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욕과 평상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해를 보고 달이라 하고, 달을 보고 해라고 하면, 낮과 밤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송현
광주 중심사 주지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곧, 조만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는 내용의 동영상이 매일 올라온다. 가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기사도 눈에 띄곤 한다. 한국이 세계국체지수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다고도 한다. 예전 같았으면 왜 그런지 따져 보았을 것이나 요즘은 제목만 보고 말아 버린다. 그런 기사들을 내가 굳이 챙겨서 유심히 살펴본다고 해서 닥칠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거니와 IMF도 겪었는데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하는 발상도 한 몫 거든 결과이다. 이런 기사들을 모두 패스해 버리고 새벽부터 내가 본 동영상은 "고대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나일강 범람과 깊은 연관이 있는 시리우스 별의 관측이 그 목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애써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현실을 초월하고픈 무의식적인 충동이 나를 부추긴다.

기고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 사무국장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처음 만난 건 막 고등학교이던 1학년의 어느 봄날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각자 학급문고를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집에서 자신의 책을 가져와 공유할 시점, 우연히 청소 시간에 학급문고함을 뒤적다가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를 발견했다.

속맥(菽麥)의 난(亂)

하였다. 호해가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라고 하자, 조고는 신하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신하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침묵파'였다. 분명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말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침묵을 선택한 부류였다. 또 한 부류는 '사슴파'였다. 분명 말이 아니었기에 목숨을 걸고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한 신하들이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속맥파'였다. 분명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슴이라고 하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슴과 말도 구별하지 못하는 속맥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젊은 척, 늙은 척

던 노부부 중 남편 되는 분이 한 말이였다. 아무런 욕심도 없는 말 같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여기저기 몸이 고장 난 사람에게 건강만큼 중요하고 간절한 것은 없다.

社說

식수원 고갈 위기...일상 속 절수 운동 절실하다

지난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장기화되면 서 광주의 주요 식수원이 메말라 가고 있다. 주암댐과 동북댐의 저수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내년 봄까지 큰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도물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잇단 비위 광산 시설공단 조직 쇠신 서둘러야

최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횡령과 불공정 채용 등 각종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문화 시설 및 노인복지관 관리 등의 업무를 광산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생활·공업 용수의 20% 자율 급수 조정을 통한 절수를 추진 중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월 1만톤 이상 수도물을 소비하는 다량 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잇단 비위 광산 시설공단 조직 쇠신 서둘러야

최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횡령과 불공정 채용 등 각종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문화 시설 및 노인복지관 관리 등의 업무를 광산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content including a sub-section '이강인 논란' (Lee Kang-in Controversy) and a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어떤 혼란의 시대보다 폐해가 크다. 상식은 몰락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등갑하는 도술(道術)이 성행한다. 이런 도술을 부리며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사이비 도사들이 속맥의 시대에는 주류가 된다. 흑세무민(惑世誑民)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능력으로 인정된다. 속맥과 교주들은 분별력을 잃은 속맥들을 이끌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말로 사람들을 부추겨 그들의 잇속을 쟁긴다. 이미 좀비가 된 속맥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교주들의 구호에 맞춰 절구하고 거품을 물고 욕을 해댄다. 이념이 사람을 집어먹고, 관념이 현실을 가린 속맥의 난이 펼쳐지는 것이다.

잇단 비위 광산 시설공단 조직 쇠신 서둘러야

을 하다 보니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 같다. 60살, 예전 같으면 나이 타령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남들은 쳐주지 않는 나이를 들이대며 부지불식간에 나이 타령을 하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어렵도 없다. 그런데 그 나이만 것이 인터뷰에서 본 분과 기껏해야 열 살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억울하다. 열 살 차이인데 한쪽은 "어르신~" 하며 깃듯하게 대접하고, 한쪽은 나이 먹은 티 내면 당장 구박받기 십상이다.

Table with 4 columns: Position (회장/발행인, 논설실장, 편집총괄국장), Name (金汝松, 程厚植, 崔宰豪), and Contact Info (1952년 4월 20일 創社, 대표전화, etc.)